

지역 소식통

완주군, 어린이 야외수영장 개장

무더운 여름을 식혀줄 어린이 야외수영장이 개장된다.

지난 14일 완주군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야외수영장을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봉동읍 둔산공원에 설치돼 내달 20일까지 운영될 야외수영장은 400㎡ 규모 조립식 수영장과 미끄럼틀 부대시설 등을 갖춘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올해 세번째 운영되는 야외수영장은 신장 120cm이하 어린이들과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영복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및 운영요령 6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수질에 있어서도 먹는 물 수준의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쓴다. /완주=이종복 기자

요촌동 부녀회, 김치 나눔 행사

김제시 요촌동 새마을부녀회(회장 한순조)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과 사립의 김치 나눔 행사를 지난 14일 수곡마을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요촌동은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면서 맞춤형복지팀과 새마을부녀회가 호흡을 맞춰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김장나눔 행사가 겨울에 집중되어 있어 겨울철 김장 김치가 떨어질 시기를 고려해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소외계층 7세대에게 직접 담긴 김치를 전달하는 따뜻한 시간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김제경찰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김제 터미널 사거리 등 이륜차 주요 이동로와 사고 위험장소에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7명중 3명(42.9%)이 이륜차 사망자로 매우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전년 교통사망사고 22명중 6명(27%)이 이륜차 운행 중 생명을 잃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모 미착용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김제경찰서는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도 운전자 보호를 위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매일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단속과 병행 이륜차 배달업체와 김제소재 이륜차 소유자 8,781명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정명 학술대회 개최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사상·문화예술의 우수성 설명

김제시는 지난 14일 '정명(定名) 1260주년 기념 金堤 역사정립 학술세미나'를 통해 역사 속에 나타난 김제의 인물과 사상,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김제 정신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金堤' 지명이 사용된 지 1260주년을 기념해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고 새만금 시대를 맞아 희망찬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전북역사문화학회 나중우 교수는 기초발표에서 역사적으로 본 김제의 정신과 문화라는 주제로 역사 속에 자리 잡은 김제의 정신을 '창의정신, 열린정신, 저항정신, 미래지향정신'의 4가지로 정의하며 과거 고난과 수탈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김제의 정체성을 지켜온 숨겨진 힘을 조명했다.

이어서 군산대 김중수 교수는 종교와 인물로 본 김제 정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진표, 진묵, 탄허, 정여립, 이기, 강중산 등의 종교사상가들이 김제 땅에서 펼쳐고자 했던 이상과 애민정신을 설명했다.

그밖에 김진돈 전북문화재위원은 예술문화에 나타난 김제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통일신라 말기의 최치원에서 조선 중기 송재 송일종을 거쳐 석정 이경직과 강압 송성용에 이르기까지 애국애민(愛國愛民) 사상이야말로 김제를 지탱해온 뿌리였다.고 강조하며 "많은 시민들이 김제의 위대함을 깨닫고 '김제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케이팅 전략을 제시하고 시농대제 개최와 아시아농업사박물관 설립을 제안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김제는 1260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인물을 배출하고 시서예악(詩書禮樂)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의 꽃을 활짝 피워온 곳으로 동학운동과 3·1만세운동 등 실천적 저항정신으로 현실의 변화를 주도해 왔으며 백성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신의 안락을 버리고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애국애민(愛國愛民) 사상이야말로 김제를 지탱해온 뿌리였다."고 강조하며 "많은 시민들이 김제의 위대함을 깨닫고 '김제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H-셀프나눔플래너 나눔활동 줄이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재능 기부 등 자발적 참여 운영

H-셀프나눔플래너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 직원들의 나눔 활동이 줄을 이어 주목을 끌고 있다.

H-셀프나눔플래너란 현대자동차그룹이 재능 기부 등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직원들이 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운영 중인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상용사업팀 김성호 씨 등 재능 기부를 통한 H-셀프나눔플래너 나눔 활동 참가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색소폰 연주 재능 기부 등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이어온 각급 사회복지시설 대상 나눔 활동에 H-셀프나눔플래너를 접목해 보다 큰 나눔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대접 받고 흥겨운 공연까지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며 기뻐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능 기부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작은 음악회 등 H-셀프나눔플래너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주총무팀 과장인 씨 등 또 다른 H-셀프나눔플래너 참여자들은 오는 9월 상연을 목표로 현재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 소외계층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창작 뮤지컬 공연을 열심히 준비 중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H-셀프나눔플래너 프로그램 활성화가 직원들의 기업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소외계층 등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과 자가 관리능력 학습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김제시민 중 본인의 혈압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4명, 혈당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이에 김제시보건소는 고혈압·당뇨 건강교실을 상설 운영하여 우리나라 단일질환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선형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고 있다.

고혈압·당뇨 건강교실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똑똑한 환자되기, 내 혈압 혈당수치알기'란 주제 아래 건강하고 튼튼한 혈관나이를 만들기 위한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건강수치 측정과 당화혈색소, 뇨염도, 미세단백뇨검사 등 합병증 조기발견 검사, 심뇌혈관질환 건강강좌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주차별로 실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하브루타와 창의공작 교실 운영

완주군 8개 작은도서관서 열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무한상상실과 8개 작은도서관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찾아가는 무한상상실 : 하브루타와 창의공작 교실(시즌II)'을 운영한다.

지난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창의공작 교실은 유대인들의 질문식 토론법인 하브루타와 로봇과학 체험으로 구성된다. 지난 봄 학기에 이뤄진 시즌의 큰 인기에 힘입어 이번 시즌에는 여름방학 특집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될 계획이다.

작은 도서관으로 전문강사진이 직접 찾아가며, 총 5회차 과정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경천애인(262-2987), 상광기창길(231-3200), 소양철쭉(247-8866), 화산골(263-1199), 이서배꽃들(222-1919), 구이모악(223-4167), 용진동

꿈(241-2756) 등 총 8곳이다. 도서관별로 초등생 1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접수는 도서관별로 교육운영 기간이 달라 가까운 작은도서관에 문의하거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강평석 완주군 공동체활력과장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무한상상실에서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며 "찾아가는 무한상상실 과정을 통해 창의력이 쑥쑥 커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무한상상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후원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새만금 지역 간재학 계승발전·사상특징 학술회의 개최

간재학회와 김제시는 "새만금 지역에서의 간재학의 계승발전과 사상특징"에 대한 학술회의를 지난 14일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간재 전문선생은 1841년에 태어나 일제 강점기에는 김제인근 계화도 지역에서 활발한 강학활동을 펼친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였는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이에 영향을 받은 김제출신의 걸출한 유학자들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로는 김중희 국회의원과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건설 김제시장,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이번 학술회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편 학술회의에 발표되는 김제출신

유학자로 유재 송기면 선생은 석정 이정직, 간재 전우등의 대학자로부터 학문적 기반을 닦았으며 참치개명 거부를 하는 등 항일정신이 투철한 진정한 선비이자 명필가로 유명하다.

또한 유재 윤재술은 그의 처수인 송기면선생, 간재전우선생에게 학문을 익혔으며 익산 남성고의 초대교장을 역임하고 6선의 오랜 의정활동을 하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불두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와 김중연선생은 간재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일생을 마치기까지 항일정신이 투철하여 일제강점기 왜곡된 교육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忠과 義를 중히여긴 교육자이자 지조있는 선비로 알려져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임실치즈' (Imseol Cheese) featuring various cheese products and a scenic background of a cheese farm. Text includes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and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